통도사, 개산대재로 '젊은 세대' 소통 나선다

10월 11일까지 개산 1379년 영축문화축제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 열어
'통도툰' 웹툰으로 만나는 통도사
10월 11일 자장 율사 영고재 봉행
제1회 통도사 합창제 새롭게 선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총림 통도사의 개산 1397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로 통도사의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과 '통도툰'이 핵심이 되어 대중을 만난다.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은 전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2024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10월 1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운영되며 통도사의 주요 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이 통도사 유산이 그려진 종이에 색칠하고, 이를 화면에 비추면 색칠한 그림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웅전과 삼성반월교 등 통도사 주요 건축물을 주제로 한 3D 도면을 색칠하고 조립할 수 있으며, 해장보각 외부 호랑이 벽화와 명부전 용 벽화는 염서 형태로, 대웅전 꽃살문 문양과 대광명전 연꽃 문양은 주사위 형태로 제작된 종이를 색칠하는 체험이 제공된다.

이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사찰의 예술적 가치를 배우는 동시에, 현대 기술과 결합된 전통 예술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통도사 방문객 전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웹툰으로 만나는 통도사 이야기 '통도툰'은 '2024 세계유산 통도사 홍보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통도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총 12편의 웹툰으로 풀어냈다. 젊은 세대에게 보다 쉽게 통도사의 유산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10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연재된다. 연재 후에는 책자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통도툰'은 통도사의 창건 설화부터 주요 건축물과 신앙, 탱화와 보물, 벽화까지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인 통도사 창건 설화는 3편의 웹툰으로 구성돼 통도사의 기원을 소개하며, 그 외에도 대웅전과 금강계단, 문수신앙, 통도사의 대표적인 보물들과 벽화를 다룬 이야기가 차례로 연재된다.

통도사는 "이번 사업들은 전통 사찰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산 1397년 영축문화축제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문화 전법의 장으로 마련된다. 스님들이 일상 가운데 찍은 승가의 생활과 통도사의 경치를 볼 수 있는 '나도 작가다'는 감로당 앞에서 상시 전시된다. 국화장엄도 진행돼 가을 국화가 경내를 꾸미며, 9월 27일부터 10월 11일 까지 문수법당에서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도 열린다. 제3회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는 9월 28일, 제1회 통도사 합창제는 10월 6일 오후 2시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 및 어르신을 위한 영축문화축제'는 10월 8일이며, 괘불특별전은 10월 5일 진행된다.

개산조 자장 율사의 공덕을 기리는 영고재 및 개산대재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설법전과 개산조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0월 5일 부도헌다례, 10월 9일 영축삼보 이운식과 괘불헌공, 10월 11일 자장율사 가사배견도 진행된다.

"파도 같던 번뇌, 근본인 '바다'로 되돌리니 편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9월 7~8일 '바다마음 템플스테이'

인하대 등 대학생 30여 명 참여
윤회담, 촛불재 등 프로그램 다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지원 일원에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대학생 불자들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명상 프로그램 '바다마음'을 경험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일원에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인하대와 대동대, 부산대 등 대학생 불자 30여 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입재식 및 '따뜻한 만남(윤회담)'으로 시작해 바다마음 체험 및 촛불재, 예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바다마음은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이 근본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 파도처럼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번뇌를 근본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는 참나인 근본을 상징하며 파도는 물방울, 즉 생각과 감정 등 번뇌를 말한다. 모든 번뇌도 참나에서 나온 경계이니 불성으로 되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내도록 돕는다.

바다마음 명상은 △바다마음 법문 정진(대행 선사 법문)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 △바다마음 컬러링(스님과의 대화)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문 정진은 블로그에 담긴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는 몸에 항상 단주를 지니고 다니며 잊어버리기 쉬운 참 자아를 챙기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바다마음 컬러링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물방울 그림에 색을 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스님과 대화하며 최근에 자주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들은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분노와 우울 등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일은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과 같다"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한마음으로 되돌려 다시 바다와 같이 넓은 한마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마친 후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유진 학생(인하대)은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를 하는데 모든 감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두 나에게서 왔다고 하셨다. 최근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어서 놀랍기도 했고 좀 더 나에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입재식에서 "30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마음 심(心)'"이라며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쓰는가에 따라 물질계가 달라지고 바뀐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나를 바로 알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학술대회 연다

범어사 · 대각사상硏, MOU 체결
근대불교 금정총림 위상 재조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이 9월 6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기념 범어사·대각사상연구원 학술대회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을 통해 범어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은 다가올 동산 대종사 60주기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열반 60주년에 맞춰 '근현대불교 범어사의 위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백용성 선사의 전법과 동산 선사, 불교정화운동과 범어사, 범어사와 경허 선사 등에 대해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총무국장 대방 스님을 비롯해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전 동국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학술대회는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과 그 정신을 이은 동산 스님의 정화 사상 및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남구불교聯, 일제 희생자 합동위령재

9월 5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서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가 9월 5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2024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재'에서 남구불교연합회는 불교의례를 담당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능후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에서 "산과 강을 빼앗기고 국토는 유린되어 주인을 잃어버린 조국에 이름없는 조선의 남녀노소는 징병으로, 징용으로, 원자폭탄으로, 위안부로, 강제동원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해방이 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한을 풀지 못한 영원들은 우리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았다"고 추모했다.

한편,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9월 5일 남구청장실에서 한가위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암, 한가위 맞아 자비나눔 실천

백미 20kg 100포 후원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9월 9일 경내 일원에서 추석을 맞아 사랑의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암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20kg 100포(600만 원 상당)을 동래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주지 자관 스님은 "한가위 추석은 무엇보다 한해의 결실을 축하하고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명절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은 축제 기간에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잘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영화선사 방한법회

1차 10월 12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화엄경〉 강설

2차 10월 13일(일)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일원역)
1:00~2:40 정토법회(〈아미타경〉 독송 및 염불)
3:00~5:00 '정토왕생과 염불' 법문

3차 10월 19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유마경〉 강설

4차 10월 20일(일) 서울 길상사
11:00 '미국 위앙종의 정수' 초청 법문



7일 집중 수행 '관음칠'
■일 시 : 9월 29일(일) ~ 10월 6일(일)
■장 소 : 청주 보산사(오송역)
7일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및 관세음보살 염불 집중 수행

■문 의 : 대지스님 010-6788-8451 / 현공스님 010-6351-6391
■주 최 : (사)위앙종

사단법인 위앙종
네이버카페 웹사이트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